

“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만 사랑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와는 달리 소아시아 지방의 빌라델비아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반면에 라오디게아교회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됨을 계시하시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셨다. 빌라델비아 지역엔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참 하나님인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반기독교운동이 유대인 회당 즉 마귀운동이 일어남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특히 거룩과 참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들의 거짓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를 심하게 해 왔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교회를 향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으로서 천하에 가장 든든하신 힘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셨다. ‘다윗의 열쇠’ 란 그 시대로부터 천년이 지난 후에 오신 ‘메시아가 열쇠’ 를 가지셨다는 것이다. 39세의 젊은 과학자로 살다가 죽은 파스칼은 그의 팜세 ‘생각함’ 에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은 성도에게 무한한 힘이 되었고, ‘그 열쇠를 가진 이가 그 집(그 왕궁)의 출입자를 정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 또한 성도에게 무한한 힘이 된다’ 고 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승리한 교회’ 가 된 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오늘날도 사회주의국가나 이슬람국가 치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와 오해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북한이나 터키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함으로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낙심이나 근심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밤낮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오늘도 조금이나마 하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절규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도 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책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서툰 사람이 되어 성경을 잘 모르는 자가 되었다면 하루에도 조금씩이나마 읽고, 알려고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말씀을 지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교회처럼 되어야 한다.”

작은 능력을 갖고 겸손할 줄 알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비록 작은 힘 밖에 없으나 이 힘을 주를 위해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기 위해 살기보다 주님 위해 사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사랑하는 이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된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모든 거짓과 거짓말의 원천이 된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거짓말하는 이들은 결국 ‘빌라델비아교회에 몇 사람을 주겠다 하셨다. 그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가 올 것이라’ 한다. 교회가 거룩과 참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고 한다. 이기는 자 즉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고 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긴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보아스 같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은 일꾼 살아 주신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칭찬받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우자.

-한국장로신문 2017년 7월 1일 발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서울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여 이루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40분부터 대치동 어린이 전도를 위한 비전음악회,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특송과 장신대 고원석 교수님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01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인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슬픔으로 기쁨을 만드시는 하나님 ”

■ 사도행전 8:1-8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니 후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말씀의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감동 넘치는 설교를 하였고 유대인들의 죄를 질타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를 끌어내 돌로 쳐서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테반을 장사한 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이 큰 슬픔에 잠긴 성도들이 이후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흠어진 사람들

성도들은 야만적인 박해를 피해 흠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흠어진 사람들’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들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믿음은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나 흠어진 사람들이나 지난 슬픔에 잠겨 살거나 위축되지 않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진력했습니다. 각기 보내시고 흠으신 장소를 내 선교지로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외치고 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생명을 주님 위해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의 상황과 흠어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흠어져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2.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다

르호보암 왕 시절 여러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후 사마리아지방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간주했습니다. 북왕국이 앗수르에게 망하고 혼혈이 가속화 되면서 유다 사람들의 경멸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면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부정찬 일로 간주했습니다. 남과 북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은 오직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라.’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인생은 누구나 칠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나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복음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경계와 차별을 넘어 복음 듣고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복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3. 기쁨이 찾아온 도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울하고 음산하며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이 도시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빈민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는가 하면 우울증 등의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의 허무를 탄식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를 전도서 끝에서 고백합니다.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소서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유익하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도시 사마리아를 큰 기쁨이 넘치도록 만든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흠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즉..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 4:12) 큰 슬픔을 겪었던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면 큰 기쁨의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가슴에 품고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시 간	인 도	기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4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6(시 50)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75(421)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행 8: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슬픔으로 기쁨을 만드시는 하나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40(497)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고원석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습 3:17 인 도 자
찬 송	40(43) 다 합 께
기 도	송영재 집사
찬 송	358(400) 다 합 께
성 경	왕상 3:9-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공감, 공명, 공의 신앙교육" 설 교 자
교육위원회 특송	말 은 이
* 찬 송	326(368)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영숙6 권사 II부: 허 숙 권사
성 경 … 왕상 9:1-9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축제 그 이후”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박수강·김복희2·이경희3
설 교 … 손달익, 조동수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소식

☛모임

1. 에스더전도회 월례회 / 19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802호
2. 9교구 연합모임 / 20일(목) 오전 11시 베델하우스
3. 3교구 연합모임 / 21일(금) 오전 10시30분(교회 출발) 뮤지엄그라운드

☛알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결혼

1. 김문범 군(2교구 김영표 집사, 권소희 권사의 장남)과 이주희 양(9교구 나기태 권사의 장녀) / 10월22일(토) 오후 12시 서울교회 본당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노호	3-3	모세	본인	전윤주	3-3	한나	본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83명	367명	1,850명	387명	1,837명

🌳공홀히 여기는 자

사랑 받을 수가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을 공홀이라고 한다. 고로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공홀은 비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겠지만 공홀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음을 인식하자. 특히 하나님의 공홀을 입고 사는 사람마다 타인에게 이 공홀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공홀을 베푸는 자의 모델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베푸신 공홀은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공홀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공홀은 용서로부터 출발되며 이해와 사랑이 동반된다. 공홀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의 열매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